

친환경·SUV가 대세...현대기아차 미래 신기술 체험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미리 보는 '서울모터쇼'

227개 업체 참여 사상 최대...전시차량 270대
기아차 쏘울 부스터·쏘울 부스터 EV 전시
쌍용·한국GM·르노삼성 SUV 경쟁 불거리



'2019 서울모터쇼'가 오는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서울모터쇼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상 최대인 227곳에 달한다. 완성차 브랜드 21개, 전기차 전문 브랜드 7개가 참가 예정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솔루션·이륜차·캠핑카 등 전시 차량만 215종, 270여대에 이른다.

올해 서울모터쇼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과 SUV이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전장부품 업체 참가를 유도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겠다"는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포부에서 잘 드러난다.

◇미래 신기술 체험 공간 만든 현대기아차·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서울모터쇼 전시 테마를 'PLAY HYUNDAI'로 잡았다. 킨텍스 제2전시장 4000㎡ 부스에 현대차 브랜드·상품과 신기술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놀이

공간을 꾸몄다.

이 곳에 8세대 신형 쏘나타 1.6터보와 하이브리드 모델, 콘셉트카 N퍼포먼스를 최초 공개한다. 수소전기차 넥쏘도 전시한다.

현대차는 8세대 신형 쏘나타에 탑재된 스마트폰 디지털 키 기능과 내장형 블랙박스(빌트인 캠)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또 넥쏘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지 알려주는 차원의 시연 행사도 갖는다.

기아차는 'T.H.E HUB'가 전시 콘셉트다. Trend·Hi-tech·Experience 테마별 기아차 브랜드 및 신기술 소품 공간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 2019에 배치했던 'R.E.A.D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더 선보인다. 'R.E.A.D 시스템'은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의 얼굴까지 분석할 수 있다. 차량 대시보드에 마련된 센서로 운전자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 스티어링 휠에 전극형 심전도 센서가 심장 박동수와 피부 전도율을 비롯한 생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기아차는 제1전시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전기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 또 광주에서 생산하는 쏘울 부스터와 쏘울 부스터 EV를 전시,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R.E.A.D 시스템 등 미래 신기술을 선보인 기아차.

<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쏘울 부스터 EV'.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와 'SP 시그니처'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쌍용·한국GM·르노삼성 'SUV 전쟁' =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차 간 SUV 제품 경쟁도 서울모터쇼의 불거리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신형 코란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블레이즈 아트 그라운드'라는 주제로 코란도, G4 랙스턴, 랙스턴 스포츠, 티볼리 아머, 티볼리 에어 등을 전시한다.

한국GM도 핵심 테마를 SUV로 잡았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대형 SUV 트래버스는 북미 인증 기준 최대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36.8kg·m를 발휘하는 3.6ℓ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Hydra-Matic) 9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됐다. 또 SUV 라인업 중 두 번째로 큰 타호를 국내 최초 공개한다. 여기에 콜라도 픽업 트럭을 전시한다.

르노삼성은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XM3 인스파이어 쇼카는 쿠파형 SUV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해당 차량이 르노 쿠파형 SUV 아카나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 자율주행셔틀·친환경차 시승도=전장부품 업체인 SK텔레콤은 이번 서울모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으로 언맨드스루션,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등도 함께 한다.

SK텔레콤은 5G HD맵(고화질 지도)과 양자보안기술(정보를 빛의 단위 물질인 '광자'에 실어 통신해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암호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기술을 전시한다.

언맨드스루션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승행사에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셔틀 'WITHUS'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일반인 대상 시승행사를 진행한다.

또 파워프라이자, 캄시스, 세미시스코 등 7개 전기차 브랜드와 더불어 IT메이커스 협동조합 소속 드론업체 5개 등 총 24개 업체가 참가한다. 소형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공개 13종 등 30여대가 전시된다. 서울모터쇼조직위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도 연다.

시승 가능한 차량은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파워프라이자 라보ev피스, 봉고ev피스 ▲르노삼성 SM3 Z.E ▲한국GM볼트 EV ▲닛산 2세대 리프 등이다.

초소형 전기차 시승에는 ▲세미시스코 D2 ▲마스터자동차 MASTA ▲르노삼성 트위지 ▲캠시스 세보-C 등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마세라티 등 수입차 14개 브랜드 서울모터쇼 총출동

벤츠 전기차 EQC 양산형·3세대 GLE 테슬라 '모델3'·'모델S'·'모델X' 공개

서울모터쇼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어떤 수입 신차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25일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마세라티·BMW·닛산·랜드로버·렉서스·미니·시트로엥·재규어·토요타·푸조·포르쉐·혼다·테슬라 등 수입차 14개 브랜드가 총출동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서울모터쇼에서 순수 전기차 EQC 양산형과 3세대 GLE를 공개한다.

또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가 들어

간 A클래스 최초 세단인 '더 뉴 A클래스 세단'과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인 '더 뉴 GLE'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

뉴 A클래스 세단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효율성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뛰어난 공기역학 기술을 자랑하는 동시에 동급 차량 대비 여유로운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더 뉴 GLE는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48V 시스템 기반의 'E-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주행 모드에 따라 전륜과 후륜에 자유로운 토크 분배가 가능한 완전 가변형 4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시트로엥은 서울모터쇼 부스에서 뉴 C5 에어크

로스 SUV와 뉴 C3 에어크로스 SUV를 공개한다. 뉴 C5 에어크로스 SUV는 유럽 올해의 차 후보까지 선정되는 등 상품성을 인정받은 시트로엥 플래그십 SUV다.

BMW코리아는 아시아 최초로 '콘셉트 M8 그란 쿠페'와 'M4 GT4', '클래식 Mini 일렉트릭', 'Mini 데이비드 보위 에디션'을 공개한다. 또 국내 최초로 '뉴 X7'과 '뉴 3시리즈', 'Z4' 등을 선보인다.

마세라티는 최상급 슈퍼 SUV 르반떼 트로페오 공개한다. 28일 오전 9시15분 킨텍스 제1전시장이다. 레이싱 혈통을 계승해 파워풀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모터쇼에 참가하는 전기차 테슬라가 운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모델3'과 '모델S



메르세데스-벤츠, 마세라티 등 수입차 14개 브랜드가 서울모터쇼에 총출동한다. 사진은 메르세데스-벤츠 이미지.

'모델X'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모델3은 모델S나 모델X와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모델이다. 모델3은 지난

해 북미 시장에서만 약 14만대가 팔리며 전기차 단 일 차종으로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모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